저는 2015년 고등학생 때 상해에 문화교류차 다녀온 것을 되짚어 상해 여행기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상해의 동방명주, 홍커우 공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가각 순서입니다. 우선 상해의 동방명주는 상하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다란 기둥을 중심축으로 구슬 세 개를 꿰어 놓은 듯 독특한 외향이 인상적이며 무엇보다도 최상층에 있는 스카이 워크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도로의 모습과 밖으로 보이는 황푸강의 모습이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이는 사진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저렇게 스카이 워크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또 다음 보이는 사진은 상해 동방명주의 전체적인 사진인데요, 동방명주탑은 미디어 그룹인 동방명주의 방송 수신탑으로 1994년 준공되었고 높이는 총 468m라고 합니다. 당시 캐나다, 러시아, 중국 광저우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높은 건물, 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높은 건물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동방명주탑의 엘리베이터는 빠르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동방명주에서 볼 수 있는 황푸강의 사진인데 황푸강이란 중국 양쯔강 하류로 길이 160km로, 상해 우쑹에서 양쯔강과 합류합니다. 옛날에는 직접 바다로 흘러 들어갔지만 양쯔강 삼각주의 발달로 유로가 변하여 지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황푸강을 유람선을 타고 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해 홍커우 공원은 시가지 북동쪽에 자리한 공원으로 전체 규모 4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래 명칭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이었지만 문학가 루쉰의 묘와 기념관이 이전해 오면서 루쉰공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무엇보다도 의미깊은 장소인 이유가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께서 일본 고관을 향해 폭탄을 던진 곳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보이는 사진은 중국 홍커우 내부에 존재하는 윤봉길 의사 생애사적전시관의 사진입니다. 이 안에는 윤봉길 의사의 친필로 적힌 서적과 아들들에게 보내는 시 그리고 시계가 놓여있습니다. 만약 상해에 가신다면 도시속 넓은 자연을 위해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윤봉길 의사 생애사적전시관을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상해가 굉장히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느꼈던 부분이 바로 독립활동의 주 중심지를 상해로 잡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상하이에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 근처는 주변의 민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있을 뿐더러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내부도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내부는 굉장히 좁고 백범 김구 선생께서 업무를 보셨다던 장소로 올라가는 난간도 협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상해를 여행하면서 발전한 상해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아픔까지 느끼고 왔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해의 주가각에 대해 들고 왔습니다. 사실 주가각은 송나라 대에 시장이 형성되어 명나라 대의 만력 연간에 진(주계진)이 되었습니다. 수상 교통의 요지로, 방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주자자오는 현재 상하이와 쑤저우, 자싱의 세 도시를 중심으로 할 때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은 수로와 가옥을 볼 수 있으며, 돈을 내고 주가각의 강을 배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중국의 전통가옥 같은 양식을 많이 볼 수 있고 또한 중국 취두부등을 맛볼 수 있도록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박 4일동안 상해의 여러곳을 여행하면서 놀랐던 점은 상해가 정말 상업과 관광업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고 관광지로서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신호등이 없다는 점과 출근시 오토바이등이 많고 발전된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해의 부분적 발전은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단편의 예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